



# 통계청, 2011년 가계금융조사 결과 발표

최 원 선임연구원

- 통계청의 ‘2011년 가계금융조사 결과’에 따르면 2011년 3월 말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자산 및 부채액이 2010년 2월 말보다 각각 7.5%, 12.7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  -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자산은 2010년 2월 말보다 7.5% 증가한 2억 9,765만 원으로 조사됨.
    - 이 중 금융자산은 17.3% 증가한 6,905만 원이고 부동산은 4.2% 증가한 2억 1,907만 원으로 자산총액에서 각각 23.2%, 73.6%를 차지함.
  - 가구당 평균 부채액은 2010년 2월 말보다 12.7% 증가한 5,205만 원으로 나타남.
    - 이 중 금융부채가 14.2% 증가한 3,597만 원, 임대보증금이 9.5% 증가한 1,608만 원으로 전체 부채에서 각각 69.1%, 30.9%를 차지함.
    - 금융부채 가운데 담보대출은 12.3% 증가한 2,850만 원, 신용대출은 21.9% 증가한 625만 원으로 나타남.
  -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구당 순자산액의 경우 2010년 2월 말보다 6.5% 증가한 2억 4,560만 원을 기록함.
- 2011년 3월 말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17.5%로 2010년 2월 말보다 0.8%p 상승하였는데, 이는 총자산 증가(7.5%)에 비해 총부채 증가(12.7%)가 컸기 때문임.
  -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71.6%로 4.4%p 하락하였는데, 이는 저축액 증가(21.2%)에 비해 금융부채 증가(14.2%)가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임.
  -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18.3%로 2.2%p 상승하였는데, 이는 가처분소득 증가(7.7%)에 비해 원리금 상환액 증가(22.7%)가 컸기 때문임.
- 소득수준별로 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보유자산, 부채보유 가구비율, 가구당 부채액, 순자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.

- 가구당 평균 자산은 소득 1분위 가구가 1억 846만 원이며, 상위분위로 갈수록 증가하여 5분위 가구는 6억 5,281만 원을 기록함.
  - 부채는 소득 1분위 가구 중 32.8%가 가구당 평균 4,400만 원을 보유하고, 상위분위로 갈수록 부채 보유 가구비율과 가구당 부채액이 증가하여 5분위 가구는 77.4%가 1억 5,530만 원의 부채액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남.
  - 가구당 평균 순자산도 소득 1분위 가구가 9,401만 원, 5분위 가구는 가장 많은 5억 3,258만 원을 기록함.
- **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자산은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가구당 평균 4억 3,427만 원이고, 임시·일용직 가구가 가장 적은 1억 2,209만 원으로 나타남.**
- 부채의 경우 자영업자가 보유가구 74.2%, 가구당 평균 보유액 1억 1,395만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된 반면, 임시·일용직이 56.7% 가구가 가구당 평균 4,337만 원의 가장 적은 부채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남.
  - 순자산의 경우도 자영업자가 가구당 평균 3억 4,972만 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, 임시·일용직이 가구당 평균 9,749만 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으나 전년대비 증가폭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남.

(2011년 가계금융조사 결과, 통계청 등, 11/11)